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2, 397-415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자기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강 은 영†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기존의 자기애 척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 자기애의 특성들 중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였고, 적응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자기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총 72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392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34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된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확증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다른 대안적인 모델들과 비교할 때 2요인 모델이 본 연구의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또한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다른 심리적인 특성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불안,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자기개념, 적대감을 측정하는 척도와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295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2가지 하위요인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혼재 집단, 비자기애 집단 등 4가지 집단으로 나뉘었다. 집단 간 변량분석 결과 자존감과 자기개념 영역에서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혼재 집단이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과 비자기애 집단보다 더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하위 영역 중 중요도에서는 혼재 집단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이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비자기애 집단보다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영역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차원 자기애 척도, 자기주도적 자기애, 타인의존적 자기애, 자존감, 자기개념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강은영 /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신경정신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1198
FAX : 032-467-9302 / E-mail : oldman-sea@hanmail.net

Freud가 그의 저서 "On Narcissism(1914)"에서 자기애를 개념화하여 이 용어를 정신분석에 사용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자기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수많은 논쟁을 불러왔다. 이는 수많은 논의와 경험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마다 자기애의 개념이 성적 도착, 발달 단계, 대인관계 양식, 임상적 증후군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들을 두고 자기애라 부르기도 하고 자기애로 분류할 수 있는 현상들을 다른 개념을 써서 기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Wink & Gough, 1990).

자기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애가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심리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란 인식은 많이 자리 잡았다. 자기애의 폭넓은 정의는 자기에 대한 심리적 관심의 집중을 의미한다(Bursten, 1982; Wink, 1995에서 재인용). 이런 식의 해석은 자기애가 병리적인 의미보다는 건강한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애의 건강한 요소에 속하는 자기-지향적인 정신 활동은 건강한 자존감, 개인적인 응집력,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고(Stolorow, 1975), 창조성, 지혜, 공감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Kohut, 1966) 가정되고 있다. 반면 1980년에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통계 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Ⅲ DSM-Ⅲ)에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진단범주로 포함시키면서, 자기애가 비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에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런 DSM 진단준거에 근거하여 개발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애적 검사지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는 리더쉽-권위, 우월성-자만, 자기몰두-자기선망, 착취성-특권의식의 4가지 하위요인들과 대인관계 및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자기애의 병리적 측면에서 부정적 소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하였다. 그러나 성격 장애는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성격 특성들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광범위하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일부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자기애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격 특질들이 제안되기도 한다(Carrol, 1996; 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1992; Raskin & Novacek, 1989; Watson & Biderman, 1993). 이와 같이, 자기애가 정상적인 심리적 발달과 비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에 관여하며 인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최근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기애 구성에 대한 수많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자기애 척도들은 DSM-Ⅲ(APA, 1980) 준거를 사용하여 개발되었는데, 가장 폭넓게 연구된 자기애 척도는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Hall, 1979)이고, 그 외에 Wink와 Gough (1990)의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CPI), Raskin과 Novacek(1989)의 MMPI Narcissism Scale, 그리고 Morey, Waugh, 및 Blashfield(1985)의 Narcissism Scale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자기애 척도는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는데,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로 진단된 준거집단을 통해 Ashby, Lee 및 Duke(1979)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를 개발하였고, Serkownek(1975)의 Narcissism-Hypersensitivity Scale과 Pepper와 Strong(1958)의 Ego-Sensitivity

Scale은 MMPI 남성성/여성성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로 개발되었다. 세 번째 유형의 자기애 척도들은 DSM-Ⅲ보다는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개발되었는데, O' Brien(1987)의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하는 악의에 찬 교육(poisonous pedagogy) 하위척도와 다른 사람의 승인으로부터 자기-확신을 도출해 내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자기애적으로 악용된 성격(narcissistically abused personality) 하위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반면에 Millon(1982)의 Narcissism Scale은 사회학습이론을 반영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의 자기애 척도는 관찰자가 자기애 성격을 평가해서 측정하는데, Wink(1992)의 California Q-set(CAQ)은 3개의 하위척도를 갖고 있고 그중 첫 번째, 자기중심성 척도는 충동통제가 안되고, 자기-도취, 자기-극화, 생색내는 태도를 가리키는 문항들이고, 두 번째, 과민성 척도는 적개심과 성마름, 비판과 요구에 대한 민감성, 자기-방어성 문항들이고, 세 번째, 자주성 척도는 높은 열망, 독립성, 폭넓은 관심, 심리적인 경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가리키는 문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Harder (1979)는 '초기기억 검사,' '주제통각검사', '로샤 검사'로 투사적 자기애 척도를 구성하였다. 자기-보고 척도와 관찰자 척도들에서 자아 팽창성, 주목받고자 하는 바램, 타인에 대한 경멸, 자만심, 과시성, 자기-중심성, 충동성의 특성은 공통적인 자기애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척도들 마다 자기애 특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NPI와 Wink & Gough의 Narcissism 척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주장성, 사회적 균형, 확신(Wink, 1991), 그리고 잠재적인 리더십, 성취지향성(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과 관련된다. NPI의 하위척도들 중 착취성과 특권의식은 리더십과 권위성, 자기-몰입, 허영심, 우월감보다 더 병리적인 특성임을 나타내는데, NPI의 착취성과 특권의식 하위척도만이 의심성, 불안, 신경증(Emmons, 1984), 공감의 결여(Watson et al., 1987), 비합리적인 신념(Watson & Morris, 1990), 냉소주의(Watson, Sawrie, & Biderman, 1991)와 관련성을 보였다. 관찰자가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척도들에서, CAQ의 자기중심성 척도와 과민성 척도 외에 자주성 척도는 개인적인 자주성, 높은 포부, 지적이고 심미적인 관심으로 특징되는 건강한 자기-지향성을 측정하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개인은 사회적 균형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었다(Wink, 1991, 1992).

Kohut(1971, 1977)의 이론에서, 그는 자기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한 구조가 열정적인 야심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면, 다른 구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체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한 개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안정적인 구조에 토대를 둔 자기가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가치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Kohut 이론의 중요한 시사점은 자기애가 한 연속선 상의 양 극단에 있는 서로 다른 특성들로 존재하거나 자기애의 다른 특성들이 두 개의 연속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척도를 통해 자기애를 측정할 때 생기는 문제들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자기애를 측정하는 하위영역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Raskin과 Novacek(1989)의 NPI 7개 요인 중 착취성과 특권의식은 미성숙한 방향에 토대를 두고 있고, 권위, 자기-충족, 우월성 및 허영심은 적응적인 내적 구조에 위치하

고 있다. 이는 자기애의 7가지 요인들과 다른 심리적인 지표들과의 상관을 보았을 때, 권위, 자기-충족성, 우월성, 그리고 허영심은 우울을 포함한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에서 덜 부적응적인 반면에 특권의식, 착취성, 과시성은 더 병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병리적인 측면인 특권의식, 착취성 및 과시성이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심리적 지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Kernberg(1975)의 견해를 빌려오면,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질투와 같이 자신의 열등함 또는 취약성을 인식하게 하는 느낌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높은 자존감과 과대적인 자아상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자기애의 특성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에서 타당화 되어 쓰이고 있는 측정도구는 DSM 진단 준거에 근거하여 개발된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Hall, 1979)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애의 병리적인 측면은 강조되고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애가 연속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자기애의 특성을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으로 구분한 이차원적 자기애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척도를 토대로 적응적인 특성과 부적응적인 특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1: 이차원 자기애 척도 개발

연구 1에서는 적응적인 자기애 측면과 부적응적인 자기애 측면을 구분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자기애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척도들 중에는 자기애적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Morey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황순택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가 해당된다. 이런 척도의 문항들로 예비척도를 구성한 뒤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의 3개, 충북 소재의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남자가 179명, 여자가 213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4.0세로 범위는 19세에서 44세까지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6.0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22.0세였다.

도구

자기애적 성격 검사

Raskin과 Terry(1988)의 40개 문항인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를 한수정(1999)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NPDS)는

Morey 등(1985)이 MMPI 척도에서 11개의 DSM-III 성격장애들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되는 문항을 제외한 14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황순택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황순택(1995)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Chronbach's는 .68이었다.

절차 및 분석방법

피험자들에게 자기애적 성격 검사 40개 문항, Morey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14개 문항, 황순택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 18개 문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서 총 7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나눠주고 자기 보고하도록 하였고, 얻어진 자료로부터 이 3가지 척도들을 합친 총 72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들이 적응과 부적응 측면인 2요인 구조로 문항들이 묶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2개 요인으로 지정하였다. 그 뒤, 2개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문항들은 제외하고 2개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을 문항분석 과정을 거쳐 다시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들을 제외시켰다. 각각의 요인 속에 포함된 문항수는 17개였고, 두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 총수는 34개였다.

결과 및 논의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72개의 문항에 대해 주축 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scree 검사를 한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이 4개가 나왔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 2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해 준 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사각회전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개의 요인에 부하되지 않는 27개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분명한 요인부하패턴을 갖는 문항들로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하여 남은 45개 문항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8개의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두 개의 요인에 동시에 요인부하량을 갖는 한 개의 문항은 좀더 높은 요인부하량을 갖는 요인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문항의 내용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경험을 즐기고 영향력을 끼치기를 선호하는 요인 1의 문항내용들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후 각 요인들에 포함된 문항들 중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낮은 3개의 문항을 추가로 제외하여, 각 요인의 최종적인 문항 개수는 각각 17개로 총 34개의 문항이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34개의 문항에 대하여 2요인을 지정하고 최대우도법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각 요인 내에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이름은 각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였다. 요인 1의 17개 문항들을 살펴보면 리더십을 행사하길 선호하고, 주장성 및 권위성과 같은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자기주도적 자기애로 명명했다. 요인 2의 17개 문항들을 살펴보면 타인의 비판에 대한 민감성,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정서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타인의존적 자기애로 명명했다.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NPI의 하위요인 중 권위성, 자기-충족성 및 우월성 요인들과 일치하며, 또한 CAQ의 하위척도 중 자주성 척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척도와 관련있는 기존 요인들의 중심적인 특성은 주장성, 리더십 행사 선호, 자기-확신, 독립성, 성취에 대한 욕구, 자기애적 자아 팽창 및 높은 포부수준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기애의 적응적이고 건강한 측면이라고 언급하였다(Emmons, 1984; Wink, 1992; Mullins & Kopelman, 1988).

타인의존적 자기애의 문항을 살펴보면, 주로 타인에 의해서 주목받고 찬사받길 원하는 바램과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나 비난이나 좌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들이다. 이런 특성들은 NPI의 하위요인 중 과시성과 특권의식 요인과 일치하며, 또한 CAQ의 하위척도 중 과민성 척도, 자기중심성 척도의 특성과 관련 있고, 마지막으로 정상집단보다는 임상적인 집단에서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O' Brien의 다면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척도 중 자기애적으로 악용된 성격 척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타인의존적 자기애 척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의 중심적인 특성은 적대감,

표 1. 1 요인 문항

문 항 내 용	요인1	요인2
4. 나는 내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854	
35.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831	
17.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828	
23.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624	
27.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618	
10.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98	
16. 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믿게 할 수 있다.	.573	
28.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559	
11. 나는 내 책임 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554	
3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552	
5.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542	
33.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520	
21.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495	
30.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477	
7.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459	
13.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437	
37.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457	.379

표 2. 2 요인 문항

	문 항 내 용	요인1	요인2
6.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626
22.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562
18.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 줘야 한다.		.547
1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544
24.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489
29.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475
8.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445
34.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444
36.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407
19.	나는 나의 외모를 살펴보기를 좋아한다.		.397
31.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387
25.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한다.		.373
9.	나는 기회만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357
14.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350
15.	유력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340
26.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309
20.	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301
	고유치	8.526	3.459
	설명 변량(%)	25.077	10.173

성마름, 비판과 좌절에 대한 민감성, 자기-방어성,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해서 자기-확신을 도출하는 경향성, 충동통제의 결여, 자기-도취적인 태도 등이다(Auerbach, 1984; Hibbard, 1992; O' Brien, 1987; Raskin & Terry, 1988; Wink, 1991). 이러한 특성을 갖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기애의 부적응적이며 병리적인 측면이라고 언급하였다(Emmons, 1984; Mullins & Kopelman, 1988; Wink, 1992).

연구 2: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타당화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및 수도권의 3개, 충북 소재의 1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 중 남자가 161명, 여자가 134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2.0세로 범위는 19세에서 36세까지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은 22.3세, 여자의 평균연령은 21.6세였다.

도구

이차원 자기애 척도

본 연구에서 자기애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차원적 자기애 척도의 평균은 107.67이고, 표준편차는 15.05, 신뢰도 계수는 .92이었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점수 평균은 51.97, 표준편차는 8.78, 신뢰도 계수는 .90이었고,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점수 평균은 55.64, 표준편차는 8.07,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BDI)의 한국판(이영호, 송종용, 1991)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불안 척도

Beck Anxiety Inventory(BAI)를 권석만(1992)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평균은 37.01, 표준편차는 9.76,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일반적 부적응 척도

Welsh(1952)이 MMPI 문항들 중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적응 정도를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1965)가 번안하여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평균은 88.57, 표준편차는 15.74, 신뢰도 계수는 .87이었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것으로,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자존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다면적 자기개념 검사

권석만(1996)이 자기개념의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14개 자기개념 영역을 8가지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영역 중 물리적 자기에 속하는 신체적 건강 및 체력, 가족의 재산 및 경제적 상태, 그리고 정신적 자기에 속하는 인생관 및 가치관의 확립 등 세 영역의 24문항을 제외하고 11개 영역에 해당하는 88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적대감 척도

Cook과 Medley(1954)가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1965)가 번안하여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한 문항을 사용하였고, 평균은 72.95, 표준편차는 7.25, 신뢰도 계수는.81이다.

분석 방법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으로 구성된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2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들을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AMO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χ^2 검증 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져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 Bentler & Bonett, 1980)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 Lind, 1980),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울척도, 불안척도, MMPI 일반적 부적응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이차원적 자기애 척도에 의해 어떤 형태의 집단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울척도, 불안척도, MMPI 일반적 부적응 척도, 자존감 질문지, 다면적 자기개념 검사, 적대감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들 간에 다면적 자기개념의 8가지 평가차원의 점수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확증적 요인분석

확증적 요인분석은 이전 연구결과나 이론에 바탕을 둔 여러 가설적 모델 중 어떤 요인구조가 실제 자료들과 잘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 사용되며, 각 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쟁 모델들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확증적 요인분석을 위해 5가지 대안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1은 이차원 자기애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모델 2는 3요인 모델에 기초하여 가정되었으며,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구조로 구성하였고, 이 3개 요인 간에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모델 3은 위계적인 2요인 구조를 가정하는 모델로,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인 2개 요인이 자기애라는 1개의 이차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델 4는 2요인 모델에 기초하여 가정되었고,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간에 상관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모델 5는 위계적인 3요인 구조를 가정하는 모델로,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제 3요인인 3개의 요인이 자기애라는 1개의 이차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 모델을 4개요인 이상의 요인구조 모델로는 가정하지 않았는데, scree 검사를 한 결과 4개 이상의 요인은 나오지 않았고, 각 요인에 할당되는 문항의 수가 3개 이하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5가지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가지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값 외에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TLI, RMSEA, 그리고 모델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 오류를 측정하는 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TLI, CFI는 대략 .90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델, .08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델, .10이상이면 나쁜 모델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표 3. 대안모델들의 적합도 지수

대안 모델	χ^2	df	TLI	CFI	RMSEA
모델 1	2389.30	527	.94	.95	.10
모델 2	1988.33	494	.95	.96	.09
모델 3	1861.36	526	.96	.96	.08
모델 4	1711.67	526	.96	.96	.09
모델 5	1495.63	492	.97	.97	.07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대안모델들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표 3), 모델 1, 2, 4는 나쁜 모델이고, 모델 3은 다소 미흡하지만 적절한 모델이고, 모델 5는 적절한 모델로 밝혀졌다. 모델 5가 모델 3에 비해서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편이나 모델의 간명성 면에서는 모델 3이 더 우수하다.

두 가지 자기애 요인과 심리적 특성들 간의 상관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불안, 우울,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다차원적 자기개념, 적대감에 대한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간에는 유의

표 4.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우울, 불안,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자기개념, 적대감의 상관관계

	자기주도적 요인	타인의존적 요인	불안	우울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자기개념
자기주도적 요인							
타인의존적 요인	.58**						
불안	-.02	.18**					
우울	-.16**	.11	.50**				
일반적 부적응	-.13*	.13*	.57**	.67**			
자존감	.37**	.02	-.39**	-.65**	-.73**		
자기개념	.30**	-.01	-.34**	-.50**	-.63**	.70**	
적대감	-.03	.25**	.34**	.40**	.50**	-.39**	-.38**

* $p < .05$ ** $p < .01$

표 5.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다차원적 자기개념 검사의 8가지 하위평가차원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자기주도적 요인									
2. 타인의존적 요인	.58**								
3. 중요도	.32**	.33**							
4. 긍정적평가도	.36**	.03	.26**						
5. 부정평가도	-.22**	.07	.15*	-.23**					
6. 이상-현실 불일치도	-.10	.14*	.15**	-.23**	.75**				
7. 기대-현실 불일치도	-.12*	.03	.09	-.02	.71**	.78**			
8. 개선가능정도	.18**	.09	.60**	.36**	-.15*	-.21**	-.15**		
9. 고민정도	-.00	.22**	.34**	-.20**	.71**	.75**	.61**	-.10	
10. 만족도	.19**	-.09	.20**	.80**	-.32**	-.39**	-.17**	.46**	-.34**

* $p < .05$ ** $p < .01$

미한 상관이 있었고(r=.58, p<.01), 이런 정적 상관은 두 요인이 공유하는 변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은 자존감(r=.37, p<.01), 자기개념(r=.30,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우울(r=-.16, p<.01), 일반적 부적응(r=-.13, p<.05)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은 불안(r=.18, p<.01), 일반적인 부적응(r=.13, p<.05), 적대감(r=.25, p<.01)과 같은 특성들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차원적 자기개념검사의 8가지 하위평가차원들과 두 가지 자기애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것이 표 5이다. 중요도에 대해서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r=.32, p<.01)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r=.33, p<.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r=.36, p<.01), 개선 가능정도(r=.18, p<.01), 만족도(r=.1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평가도(r=-.22, p<.01), 기대-현실 불일치도(r=-.12, p<.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은 이상-현실 불일치도(r=.14, p<.05), 고민정도(r=.22,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두 가지 자기애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및 군집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에 따른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들의 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환산하여, Ward 방식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살펴본 후, K-평균 군집화 방식으로 군집의 수를 4개로 지정해 주었다. 생성된 군집들을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를 분류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군집들 각각에 대한 사례수

표 6. 두 가지 자기애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군 집					
	1 (N=60)	2 (N=73)	3 (N=81)	4 (N=81)	F값	중다비교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	0.20	-1.08	-0.39	1.22	286.71***	4> 1> 3> 2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	-0.58	-1.14	0.48	0.98	249.80***	4> 3> 1> 2

주 1=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2= 비자기애 집단, 3=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4= 혼재 집단.

와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의 표준화 점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60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1의 경우,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높고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으로 명명했다. 73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2는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낮고 타인의존적 자기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자기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81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3은 자기주도적 자기애는 낮고 타인의존적 자기애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81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4는 자기주도적 자기애와 타인의존적 자기애 둘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혼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군집들 각각에 소속된 피험자들 간의 불안, 우울, 일반적 부적응, 자존감, 자기개념, 적대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자존감과 자기개념은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F(3, 291)=10.38$, $p<.001$; $F(3, 291)=5.66$, $p<$

표 7. 자기애 집단별 주요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변차 및 변량분석(F값)과 사후검증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n=60)	비자기애 집단 (n=73)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n=81)	혼재집단 (n=81)	전체 (n=295)	F	Scheffe 사후검증
불안	34.28(8.56)	36.71(9.50)	37.96(10.05)	38.63(10.32)	37.09(9.79)	2.606	
우울	29.45(7.30)	31.37(9.51)	32.16(8.85)	30.49(7.91)	30.96(8.49)	1.314	
일반적부적응	85.08(16.76)	89.00(16.93)	90.27(13.46)	88.09(15.71)	88.30(15.70)	1.323	
자존감	36.58(5.38)	32.92(6.45)	32.96(6.00)	36.95(5.78)	34.78(6.22)	10.376***	1=4>3>2
자기개념	252.88(31.72)	242.77(26.75)	243.30(24.00)	258.22(29.65)	249.21(28.60)	5.655***	1=4>3>2
적대감	70.67(8.67)	72.22(7.03)	73.63(6.14)	74.00(7.16)	72.78(7.28)	3.012	

( ) 표준편차, *** $p<.001$

주. 1=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2=비자기애 집단, 3=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4=혼재 집단

'>'표시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

표 8. 자기애 집단별 다차원적 자기개념 8가지 하위평가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F값)과 사후검증

다차원적 자기개념 하위평가 영역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 (n=60)	비자기애 집단 (n=73)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n=81)	재집단 (n=81)	전체 (n=295)	F	Scheffe 사후검증
중요도	26.87(5.48)	26.59(4.50)	29.17(5.65)	31.67(5.30)	28.75(5.62)	15.187***	4>3>1>2
긍정 평가도	24.73(5.19)	22.95(4.82)	22.04(4.32)	26.48(5.59)	24.03(5.28)	12.349***	1>3, 4>2>3
부정평가	28.42(4.87)	30.56(4.81)	30.56(4.54)	29.16(5.47)	29.74(5.00)	3.214	
이상·현실 불일치도	29.78(6.43)	31.01(5.51)	31.83(5.67)	30.86(6.91)	30.95(6.16)	1.277	
기대·현실 불일치도	28.40(5.93)	30.14(5.61)	29.62(5.05)	29.04(6.00)	29.34(5.64)	1.185	
개선가능 정도	31.11(7.16)	30.51(5.56)	31.80(6.10)	33.22(5.93)	31.73(6.21)	2.749	
고민정도	29.72(5.50)	30.45(5.14)	32.27(5.32)	31.68(5.68)	31.14(5.48)	3.222	
만족도	25.92(5.95)	24.99(5.48)	23.70(5.01)	26.40(5.90)	25.21(5.65)	3.553*	4>3

( ) 표준편차, * $p<.05$, *** $p<.001$
'>'표시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001,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혼재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다차원적 자기개념의 8가지 평가차원과 관련한 4개 군집들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와 함께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그 개념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중요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및 만족도는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3, 291)=15.19$, $p<.001$; $F(3, 291)=12.35$, $p<.001$; $F(3, 291)=3.55$,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도는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는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 혼재 집단과 비자기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만족도는 혼재 집단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자기애에서 적응적 자기애와 부적응적 자기애로 구분하는 이차원 자기애 척도를 개발하여 그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과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이 심리적 특성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여러 대안 모델들을 가정하고 모델들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위계적인 3요인 구조가 위계적인 2요인 구조보다 다소 더 나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의 간명성 면에서는 위계적인 2요인 구조가 더 우수하여 본 연구에서는 2요인 구조를 채택하였다.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은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보다 우울과 일반적 부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존감과 자기개념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높은 사

람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목 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능력과 존재자체에 대한 과대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런 지각이 부적응적이지 않으며 실제적인 자기 가치의 안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에 대한 확신, 자신감, 주장성의 특성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특성들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성취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잘 유지하면서도 적대감과는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지지될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긍정적 평가도, 개선가능정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부정평가도와 기대-현실 불일치도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자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족하고 있으며, 혹시 지금은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자기애 성향은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애 측면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자기애가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이 클 수 있으며 특히 자존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더 커진다는 연구가 있다(Sedikides, et al., 2004).

한편,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은 불안, 일반적 부적응, 적대감과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존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정서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따라서 주관적인 불편함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바램은 크지만, 실제적이고 안정된 자기가치는 불안정하고 취약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자기개념 하위 영역 중에서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그리고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가 높은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는데 Wink(1991)가 구분한 2가지 자기애 측면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과민하고 방어적이며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과 많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차원 자기애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이 어떤 형태로 구분되는지 살펴보았다.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형태로 구분된 집단들은 자기주도적 자기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으로, 타인의존적 자기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을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으로, 두 가지 요인 모두에서 점수가 높지 않은 집단은 비자기애 집단으로, 두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은 혼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은 높은 자존감과 자기영역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그리 신경쓰지 않고도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그 개인의 자존감에서 근거한다

고 추론해 볼 수 있다. Murray(1938)는 자기애적 성격을 취약함과 자기몰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과대적으로 지각하고, 착취적이고, 주목받고자 하는 지나친 욕구와 동시에 무시받거나 하찮게 취급되는 느낌에 취약하고,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불안을 느끼며 박해망상의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혼재 집단의 결과는 Murray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혼재 집단은 자기주도적 자기애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지적되거나 드러나는 것에 정서적인 취약함을 보인다는 점에서 혼재 집단의 긍정적 자기평가와 자존감은 실제적인 자존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얘기해왔듯이 높은 자존감과 과대적인 모습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취약성을 감추고자 겉으로 드러내는 또는 자신만의 공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자기애는 비방어적 자존감을 갖고 있고 나쁜 자기애는 자기중심성과 불유쾌한 자기 평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적 자존감이라는 Pulver(197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길 바라지만, 현실 속에서 자기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좌절경험으로 말미암아 자기애적 욕구가 역기능적으로 발현되어 심리적인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잘 적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서 약간의 좌절과 비판에도 타인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품는 등 쉽게 심리적인 안녕함이 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듯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과 혼재 집단을 같은 부적응적인 집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타인의존적 자기애 집단은 그들의 자기애적 욕구가 좌절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혼재 집단은 자기애적 욕구가 실제적으로 좌절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치의 취약함과 열등함이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자기 보호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어서 높은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비자기애 집단은 낮은 자존감을 보이며 부정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도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다. 첫째, 자기애의 적응적인 측면을 좀더 관심있게 살펴보기 위해 자기애의 적응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기애 특성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자기애 척도들을 요인 분석함으로 적응적 자기애 특성과 부적응적 자기애 특성이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둘째, 근래들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높은 자존감이 단순히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어적인 노력이라는 기존의 설명은 자기애의 복잡한 특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고려해 보겠다. 첫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된 대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해봤을 때 자신의 정체감이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가치체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피험자에 의해서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와 타인이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들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인 자기애로 시사되는 요인과 부적응적인 자기애로 시사되는 요인인 두 가지 요인을 검증하였다. 자기애가 복잡한 특성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적응적인 자기애와 부적응적인 자기애 안에서도 다시 여러 하위특성들로 분류될 수 있음으로, 이를 좀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 우울과 불안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Masterson(1981)이 자기애적 성격 성향 자체가 자신의 과대적인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애적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응적인 자기애와 부적응적인 자기애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병리적인 특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표면적 반응인지 아니면 적응적 자기애는 실제로 우울과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적게 느낀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지연 (1997).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 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Auerbach, J. S. (1984). Validity of two scales fo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649-653.

Bursten, B.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and antisocial personalities. *Psychiatric Clinical North America, 12*, 571-584.

Carrol, L., Hoeningmann-Stovall, N., & Whitehead Ⅲ.,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Cramer, P. (1995). Identity, narcissism, and defense mechanism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341-361.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the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521-525.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Kohut, H. (1966).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3*, 86-113.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sterson, J. F. (1981). *The narcissistic and borderline disorders*. New York: Brunner & Mazel.

Millon, T. (1982). *Disorders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Morey, L. C., &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Ⅲ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245-252.

Mullins, L. S., & Kopelman, R. E. (1988). Toward an assessmen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10-625.

O'Brien, M. (1987). Examing the dimensionality of pathological narcissism: Factory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O'Brien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61*, 499-510.

Pepper, L. J., & Strong, P. N. (1958). *Judgmental subscales for the Mf scale of the MMPI*. Unpublished manuscript.

Pulver, S. E. (1970). Narcissism: The term and the concep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8*, 319-341.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m, self-esteem, and defensive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59*, 20-3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erkownek, K. (1975). *Subscales for scale 5 and 0 of the MMPI.* Unpublished manuscript.

Stolorow, R. D. (1975). Toward a functional

definition of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6*, 179-185.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Watson, P. J., Tayle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Watson, P. J., & Morris, R. J. (1990). Irrational beliefs and the problem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 1137- 1140.

Watson, P. J., Sawrie, S. M., & Biderman, M. D. (1991). Personal control, assumptive worlds, and narcissism.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929-941.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 splitting,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1-57.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Wink, P. (1992). Three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Q-se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769-791.

Wink, P. (1995). Narcissism. In C. G. Costello (e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pp. 146-172). New York: Wiley.

원고접수일 : 2005. 7. 27
게재결정일 : 2006. 3. 4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2, 397-4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wo Dimension Narcissism Scale: The Relations between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Character

Eun-Young Kang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Existent experimental studies of narcissism scale suggested both aspects of positive trait and negative trait in narcissism. On the basis of this view, this study explores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and attempts to identify how adjustive narcissism and maladjustive narcissism are divided. Study Ⅰ examines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to classify between adjustive narcissism and maladjustive narcissism and attempts to investigate a trait of this scale. For this study, preliminary scale of total 72 items was administered to 392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factor analysis and item analysis process, 34 items were finally selected for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This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two factor structures such as 'self-initiative narcissism'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Study Ⅱ administered confirmatory analysis of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Compared with other alternative models, 2 factor model explained material more clearly. In order to identify a validity of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and relation of other psychological trait, scales related with depression, anxiety, general maladjustment, self-esteem, self-concept and hostility and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were administered to 295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wo subscales of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subjects were classified with cluster analysis into four groups; self-initiative narcissism group, other-dependent narcissism group, complex group and non-narcissism group. Then four groups were compared by ANOVA. In self-esteem and self-concept, Self-initiative narcissism group and complex group had higher self-esteem and self-concept than other-dependent narcissism group and non-narcissism. In a part of self-concept such as important and positive estimation, complex group 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group were attention in other's estimation than self-initiative narcissism group and non-narcissism group. On the other hand, other-dependent narcissism group showed low positive estimation as well as dissatisfaction. Finally,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is discussed.

Keywords : Two-Dimension Narcissism Scale, Self-esteem, Self-concept, Self-initiative narcissism, Other-dependent narcissism.